



01

과거와 미래의 만남

고양독립운동 기념탑을 가다

고양시민들의 휴식과 만남을 제공하는 일산문화공원. 이곳에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고양독립운동기념탑이 높이 솟아 있다. 민족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3월, 고양 땅 곳곳에 깃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걸어본다.

1919. 03.

호국정신과 평화를 기억하다

입구에는 고양 출신 74인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의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해 설치된 공훈비가 있다. 자주독립을 위한 선열의 헌신을 기억하고자 세워졌다. 3·1운동과 학생운동을 포함하여 국내는 물론 중국 만주, 미주 방면에서의 항일운동과 애국계몽운동, 임시정부수립, 의병 활동 등 다양하게 활약한 인물들의 공훈이 소개된 비석이다.

입구에서부터 탑까지는 태극마당에 위치한다. 고양독립운동기념탑의 의의와 임시정부 선포문이 새겨있다. 일상과 추모 사이의 공간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고양은 중심에 있었다. 외세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조국을 위해 저항, 헌신, 희생하였다. 장하다 우리 고양.



02

애국의 찬란한 순간을 새기다

높이 31m인 탑의 형상은 고양의 꽃봉오리, 비상하는 날개, 기도하는 손 모양이 좌우 대칭으로 이어진다. 좌측의 은색 파동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고양의 현재와 미래의 찬란한 모습을, 우측의 금색 파동은 역사 속에 살아 숨 쉬는 고귀하고 뜨거운 애국심을 표현했다.

탑의 부제는 ‘대한 독립, 그날의 함성, 현재·미래의 평화번영’이다. 주요 시설물로는 그날을 기억하고 기록한 흔적이 남겨져 있다. 탑의 우측에는 3·1운동 그 날의 함성이, 좌측에는 경의선 평화의 철길이 조각되어 있다. 한 걸음 기념탑 안으로 들어가면 임시정부 선포문과 건립 의의가 새겨져 있다. 탑의 내부에는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이필주 목사, 연해주 의병대장 이범윤 선생을 포함한 74인의 고양 출신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기념하고 있다. 탑 옆에는 작은 언덕이 있는데 바람이 불어오면 태극 바람개비가 일제히 돌면서 멋진 장면을 연출한다. 🌪



03

2022. 03.

04

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1-4



- 01 — 기념탑(융합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 02 — 입구(진입부)
고양 출신 74인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의 공적 기록
- 03 — 공감의 공간(공감부)
고양 독립운동의 역사와 선조들의 항일 정신 기억
- 04 — 태극마당(연결부)
일상과 추모 사이의 공간